

중국의 한국지리 연구동향*

김 석 주**

Trend of Research on the Korean Geography in China*

Shizhu Jin**

요약 : 본문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토대로 학문 일반의 연구동향과 지리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학문일반의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기관이 많이 신설되었다. 둘째, 연구 간행물들이 증가추세에 있다. 셋째, 새로운 연구 성과가 속출하고 있다. 넷째, 학술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리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연지리학보다 인문지리학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자연지리학에서는 지질과 지진 및 자연자원에 관한 연구가 많았고 인문지리학에서는 경제지리학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적고 이론에 입각한 연구가 적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앞으로 중국 지리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 지리학계에서도 중국에 한국의 지리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중국, 한국 지리, 연구동향, 자연지리, 인문지리

Abstract : By reviewing the research papers and books about Korean geography published in China during the recent 20 years, the trend of research on the Korean geography in the filed of general and professional viewpoint was summarized in this paper. For general review, 4 major trends were observed. First, lots of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Second, the amount of journals and books related to the Korean geography are keeping increasing. Third, a series of new academic results are being achieved. Forth, academic exchange activities are being carried out actively in broader rangers. For professional geography study, researchers are more focused on the study of human geography rather than physical geography. And in the field of physical geography, studies about geology, earthquake and natural resource appeared livelier than others, while in human geography, studies about economic geography attract more interests. It was also observed that problems such as the research fields are limited and lack of fundamental theory study exis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earned circles of Chinese geography should do more efforts, while an effort of introduction of achievements of Koran geography study to china by learned circles of Koran geography are also necessary.

Key Words : China, Korean geography, Research movement, Physical geography, Human geography

1. 서론

본문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연구논문과 단행본을 토대로 학문 일반의 연구동향, 그리고 지리학에 관해서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분류하여 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지리학계의 한국연구 성과물에 대한 자료는 중국 지리학계에서 발간되는 학술지인 <經濟地理>, <人文地理>, <世界地理研究>, <地理科學>, <地質科學動態>, <華南地震>, <海洋地質與第4期地質>, <海洋地質調查動態>, <地理教育>, <海洋地質譯叢>, <國外地質科學>, <海洋地質信息通報>, <地震地質譯叢> 등에서 한국에 대해 쓴 논

문을 추출하였고, 일부 대학의 학술지나 연구기관의 간행물에 게재된 한국 관련 지리학 논문도 포함시켰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연구물은 1982년 1월~2002년 12월 사이에 도합 68편이었다. 이외에도 누락된 연구물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지리학 관련 연구물이나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2.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

여타 학문분야와 비교해 볼 때, 중국의 학자들이 한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1949년 중

* 이 논문은 2002년11월29일~30일 대한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에서 전경교수가 대독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중국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전임강사(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Yanbian University)(jinsz@hanmail.net)

화인민공화국 창립 후, 북괴는 정치적으로는 비록 긴밀한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양국은 타국과 교류·연구하는 분위기가 거의 없었던 관계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교류도 매우 적었다. 한국과는 이데올로기상 적대관계에 처해 있었고 그 위에 중국이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거의 공백상태였다.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70년대 후반 한국과의 교류는 경제 분야에서 시작해 80년대 그 교류가 확대되었고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의 강원도 춘천 착륙 사건으로 중국은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었다.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에 중국이 참가한 이후 민간 교류를 넘어 1992년 8월 24일 중·한수교가 이루어졌다.

그 후 중국은 경제상에서 상호 보완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 분야를 다룬 것들이다. 1979~1992년 사이 즉 중·한수교 전까지 중국 내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의 정치, 법률, 경제 등에 관한 논문이 30여 편에 달하는데, 그 중 경제에 관한 논문이 약 80%를 점했다. 같은 시기 경제에 관한 전문서적과 편저는 약 20여권에 달했고 그 중 중요한 것은 <南朝鮮涉外經濟法令匯編>, <南朝鮮10大産業>, <戰後南朝鮮經濟>, <南朝鮮經濟的騰飛> 등이다. 이 외에 한국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서적들도 일부 출판되었는데 <朝鮮>, <南朝鮮>, <朝鮮知識手冊>, <南朝鮮概觀> 등이다. 전반적으로 한·중 수교 이전 한국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분야에 편중되어 있었고 그 외 정치, 역사, 문화 등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였다.

1992년 8월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가 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현상을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에 관한 연구기관이 많이 신설되었다. 1991년부터 선후로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 북경언어문화대학 한국교육문화연구중심, 요녕대학 한국연구중심, 산둥대학 한국연구중심, 남경대학 한국연구소, 동남대학 한국학연구소,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동북사범대학 한국조선연구소, 화동사범대학 한국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소 등이

설치되었고, 각자 특색 있게 연구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 중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은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및 언어문학에 치중했으며,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은 한국 임시정부, 중한관계사 및 한국현대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모두 각자의 특색을 발휘하여 종합적으로 한국을 다루는 것이 공통점이라 하겠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남북한 연구에서 연변대학교의 역할이다. 1979년 <中國 朝鮮歷史研究會>, <中國 朝鮮文學研究會>, <中國 朝鮮語研究會> 등 전국적인 학술기관이 연변대학교에 설치됨에 따라 중·한수교 전 연변대학교는 명실공히 남북한 정보의 허브로 작용하였다. 수교 후 중국 내 타 기관들도 많은 경로를 이용해 남북을 접촉하고 연구하고 있으나 핵심 멤버들은 거의 연변대학교 졸업생들이다.

둘째, 연구 간행물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한국 연구에 양호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주로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중심에서 발행하는 <韓國學論文集>, 복단대학 한국연구중심의 <韓國研究論叢>, 절강대학 한국연구소의 <韓國研究>, 요녕대학 한국연구중심의 <韓國研究論叢>, 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의 <朝鮮學, 韓國學與中國學>, 중국사회과학원의 <當代韓國>,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정보중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발행하는 <高麗亞那(KOREAN)>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간행물들에는 한국에 대한 연구와 소개 글들이 게재되어 있어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한수교 이후,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상호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관련 정보 수요량이 급증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연구책자들이 속속 출판되기 시작했다. 중국 연구자들은 전에 일본과 구소련 등 인접국에 대한 연구경험을 소지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에 빨리 입문할 수 있었다. 일부 도서관의 자료통계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96년 사이 한국관련 단행본과 번역본이 약 300여종 출간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중·한 수교 이후 출판된 것으로서 분야별 전문연구, 인물전기, 자료색인, 논문집, 회고록, 자료집, 기행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그중 가장 많은 것이 경제 분야의 저서들이다. 이들은 주로 중·한 수교이후인 1992년에서 IMF 이전인 1997년 이전 사이에 출판된 것들이다.

넷째, 다양한 형식의 학술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84년 12월 당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장 홍일식 박사는 연변대학교 총장 박문일 교수를 미국에서 만나 <중한대사전> 감수를 중국 학자들이 맡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중·한 양국 학자들간의 협력이 수면위로 부상함을 시사했다. 1986년 한국사회과학원 이사장 김준엽 박사와 북경대학 동양언어학과 楊通方 교수는 LA에서 만나 학술교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宋成友, 1999). 1989년 2월 연변대학교 총장 박문일 교수는 캐나다 방문 귀국도중 한국에 들려 인하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었으며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김중운 총장이 연변대학교를 방문하여 두 대학 간의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년 요녕대학교의 馮玉忠 총장도 중국대학 중 한족 총장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1991년 북경대학은 <조선역사문화연구소> (후에 <한국학연구중심>으로 개칭)를 설립했다.

3. 한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동향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지리학적인 연구는 여타 학문분야, 특히 경제학이나 역사학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에 있어서 지리학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또 한국의 지리학계와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지리학 연구동향은 세분화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의 지리개설, 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로서 지리에 관한 소개차원의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을 뿐이다. 자연지리학에 관한 연구물은 24편으로서 전부 논문이다. 인문지리학에 관한 연구물은 도합 31편으로서 자연지리보다 많은 편이다. 그중 경제지리부분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다.

1) 한국 지리개설

한국 지리개설에 대한 연구물들은 완전한 지리학 연구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그 속에 지리에 관한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리개설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黃炎培(1929)의 <朝鮮>과 潘公昭(1946)의 <今日之朝鮮>(1946)이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개괄적인 저서로서 한국의 자연과 인문지리 상황에 대해 간략히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한국의 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저서라고 하겠다. 중국 건국 후에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로 인하여 북한관련 연구물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世界知識出版社(1959)에서 편집한 <飛躍發展中的朝鮮社會主義建設>, 楊振乾(1982)의 <朝鮮>, 顧銘學(1985)의 <朝鮮知識手冊>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 대한 연구물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개혁개방 초기까지 이어졌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관련 연구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楊永驩 (1985)의 <南朝鮮>, 羅寶坤(1988)의 <南朝鮮概觀>이다. 중·한 수교 이후, 개설적인 연구물들은 전부 한국 관련이고 북한 관련은 한권도 없는 상황이다. 수교이후 발표된 연구물들은 다음

표 1. 지리학 분야별 연구 성과의 분포

분야	한국 지리개설	한국 자연지리학	한국 인문지리학				합계
			경제지리	도시지리	관광지리	지역개발	
편수	13	24	17	4	6	4	68
일반논문		24	16	3	2	4	49
저서	13		1	1	4		19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한국 지리개설에 관한 연구물은 도합 13편으로서 전부 저서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소개한 책자

과 같다. 鄭保勤(1994)의 <韓國>, 劉李勝(1995)의 <韓國概論>, 李慶臻等(1995)의 <韓國現代化研究>, 侯尙智等(1996)의 <韓國概覽>, 鄭判龍等(1999)의

<簡明韓國百科全書>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대한 개설서들은 초기에 북한에 집중되었다가 후에 서서히 중한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개설서들은 대부분 단순 나열에 지나지 않아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2) 자연지리

한국 자연지리학 분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혁 개방 이후에 많이 이루어 졌다. 자연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지질과 지진 및 자연자원에 관련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질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한반도 대지구조(大地構造)의 발전 특징을 다룬 金鐘範(1993)의 연구, 북한 안주분지 석유자원의 지구화학적 특징에 대해 다룬 羅斌傑(1995)의 연구, 중국 동부와 한반도 지괴구조단위의 획득에 대해 다룬 蔡乾忠(1995)의 연구, 중국과 한반도 대지(臺地)의 오르도비스기 지층 서열에 대해 비교 연구한 史曉穎(1999)의 연구 등이다. 지진 관련 논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한의 지진 연구동향에 대해 다룬 車用太等(1991)의 연구, 중국 산동지역과 한반도 지진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다룬 刁守忠(1997)의 연구, 한반도의 역사상 3차례 강진에 대해 분석한 吳戈(1998)의 연구 등이 있다. 자연자원관련 논문 중 주요한 것으로는 한국 근해 석유자원 개발상황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룬 海洋地質調查局(1983)의 연구, 한국의 비철금속 광산자원에 대해 다룬 姜貴善(1989)의 연구, 한국 근해의 석유와 천연가스자원의 탐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 劉鴻麟(1995)의 연구, 한국 해양자원의 개발현황과 특징 및 금후의 발전전망을 다룬 張耀光等(2000)의 연구 등이 있다.

이상의 자연지리학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질과 지진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형학, 기후학, 수문학 등 여타 자연지리 분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아마도 중국과 한반도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같은 지진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실용적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자원에 대한 연구는 모두 한국과

북한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자원을 소개하는 개괄적인 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셋째, 자연지리학의 여타 분야인 지형학, 기상학, 수문학, 식물지리, 동물지리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3) 인문지리

(1) 경제지리

경제지리 분야는 여타 분야에 비해 연구물이 많은 편이다. 경제지리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물의 내용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동북아경제권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권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경제권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요한 연구는 '지연정치(地緣政治: 지정학)' 차원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방향에 대해 다룬 黃平(1997)의 연구, 북한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구와 동북아지역의 정치경제협력관계에 대해 다룬 張世和(1997)의 연구, 동북아지역 경제 합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잠재적인 수송수요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반도 육로교통 연결이 동북아의 교통 운송 시스템 구축에서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서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룬 金鳳君(2002)의 연구 등이 있다.

② 중·한 양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중한 수교와 북한의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구의 지정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경제교류 원활제로 작용했으며 아울러 학문적인 연구도 활성화 시켰다. 그러나 경제관계가 상대적으로 밀접한 산동반도와 요녕성 등과 같은 지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항구조건에 대한 분석과 중, 러, 북한 삼국 사이의 물류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송합작 중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다룬 米德長等(2000)의 연구, 산동반도의 한국 투자자기업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투자기업 사이의 산업연관 기본특징을 해부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중국이 국제산업연계를 발전시키고 지방경제가 국제노동분업에 참여하는 데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 다룬 樊杰 等(1999)의 연구, 요녕성과 한반도의 경제무역발전 현황과 특징에 대해 다루고, 경제무역이 발전하게 된 조건과 발전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다룬 于天福(2000)의 연구, 산동반도와 한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에 관해 다룬 任建蘭(1995)의 연구 등이 있다.

③ 한국의 해외투자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의 급성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가속화시켜 인접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나타났다. 주요한 연구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홍콩,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 국가의 외국투자기업의 투자액, 투자지역, 투자액 증가속도, 투자부문, 투자형식, 성공률 등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분석한 李淑霞 等(1997)의 연구,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입지선택 전략과 영향요인에 관해 다룬 黃勝籟(1997)의 연구, 경제입지 이론의 시각에서 일본과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본과 한국기업의 투자행위, 투자패턴과 투자지역의 공간분포패턴에 대해 다룬 張文忠(1999)의 연구, 한국의 대 산동성 직접투자의 특징, 투자동기와 산동성의 입지 우세, 존재하는 문제점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 다룬 江心英 等(2000)의 연구 등이다. 이외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王志樂(1996)의 단행본도 있다.

④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이 분야에 관련되는 연구들은 매우 많지만 순수 지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는 安虎森(1990)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한국의 경제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분류하고 각 시기별 산업의 발전과 입지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다. 이외에 한국의 첨단산업정책이 경제발전에 주는 영향에 관해 다룬 王立軍(1998)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자연과 사회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3개 단계로 나누어 회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특징을 총결하

고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 呂婷婷(2003)의 연구가 있다.

이외에 한국의 경제지리를 농업지리학, 공업지리학, 상업유통지리학, 교통지리학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연구동향에 대해 서술하고 한국의 경제지리분야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발전추세에 대해 다룬 安虎森 等(1998a)의 연구도 돋보인다.

이상의 중국학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지리학 적 차원에서의 연구들은 경제지리학 이론에 입각한 분석차원의 연구가 적고 중국과 한국과의 경제관계와 한국의 해외집적투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중국의 연구지역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 하겠다.

(2) 도시지리

한국의 도시에 대한 지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물이 4개 발견되었다. 그 중 한국도시발전정책을 단행본으로 출판한 金鐘範(2003)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그는 한국에서 도시지리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 책의 출판은 중국에 한국의 도시발전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해를 하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할 것이다. 이외에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지구과학이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작용에 대해 다룬 葛秀珍(2003)의 연구, 한국의 취락을 농촌, 어촌, 산촌, 특수촌락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 대한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추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安虎森 等(1998b)의 연구, 상해시, 강소성과 절강성의 도시시스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도시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들 지역의 미래 도시화 발전 전략과 도시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한 王旭 等(2004)의 연구가 있다.

(3) 관광지리

중국의 발달한 지역의 국민소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외 여행객을 위한 외국 관광안내서적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다. 한국관련 관광안내서적으로는 徐憲忠(1998)의 <韓國旅遊指南>, 路柴(2002)의 <韓國旅遊指南>과 奧亞斯(2003)의 <百地福旅遊指南: 韓國>이 있다. 이들은 한국의 주요 관광지과 문화, 풍습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외

에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경시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楊曉霞(2002)의 연구,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단동시는 북한관광을 추진함에 있어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아 불안정한 측면이 있지만 이는 단동시의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동시에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鄭遼吉(2002)

의 연구, 한국의 토지이용계획체계의 구성과 주요한 특징 및 농촌종합개발과 농촌도시화에서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 다루고 중국에서 앞으로 토지이용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점들을 서술한 劉黎明(2004)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주로 국토개발에 있어 중국보다 한발 앞선 한국의 선진적인 경험과 시행착오에 대해 분석하여 중국에 적용 하고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 연구 성과의 시계열적 분포(1990~2004년)

	1990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2002	2003	2004	합계
합계	1	1	3	4	4	2	4	6	7	2	34
저서	1				1			1	3		6
논문		1	3	4	3	2	4	5	4	2	28

의 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순수 관광 지리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4) 지역개발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의 지역발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에서 커다란 성공을 가져온 불균형 지역발전전략이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특징에 맞는 전략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王曉文(1994)의 연구, 한국을 비롯한 외국 국토계획의 개념, 개혁 특징, 새로운 이념, 발전추세 등을 비교하고 이것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다룬 顧林生(2003)의 연구, 일본과 한국의 국토계획 기관의 설립, 국토계획이 양국의 경제발전과 재해예방에 일으킨 작용 등에 대해 다

위의 한반도 인문지리학 관련 연구물들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아낼 수 있다. 첫째, 인문지리학분야 중 경제지리에 관한 연구가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둘째,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고 지리학 세부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물들이 적다. 셋째, 한국에 대한 연구가 북한에 대한 연구보다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구는 대부분 중·한 수교이후 이루어진 것이다(표 2).

4.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 간의 학술교류

표 3. 연변대학교 지리학과 주최 국제학술회의

학술대회 명칭	개최일	참가국	참가인원수
국제 인문지리 학술심포지움	1991.09	중국, 한국, 북한, 캐나다	50
인문지리학과 지역개발	1992.08	중국, 한국, 미국	42
동북아 국제지질 학술대회	1994.08	중국, 한국	20
동북아 지역개발학술회의	1995.08	중국, 한국, 일본	29
중국과 북한 환경보호학술회의	1997.12	중국, 북한	23
동북아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1998.08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	80
동북아 국제지질 학술대회	2000.07	중국, 한국	54
환경생태 보전과 복원	2004.10	중국, 한국	30

중국과 남북 지리학자들 간의 학술교류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남북한 지리학자들의 학술교류를 가장 많이 진행 한 곳은 중국 연변대학교이다. 연변대학교의 지리적인 위치, 동일한 언어, 중국 내의 개방 분위기 등이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와 같은 교류는 중국 내에서 연변대학교 지리학부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 간의 첫 만남은 1991년 8월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개최된 인문지리학 국제학술 심포지엄 에서였다. 이를 계기로 연변대학교와 한반도 지리학자들 간의 교류가 빈번하게 되었으며, 두만강개발 연구를 테마로 한 중한지리학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표 3).

위의 표에서와 같이 연변대학교는 중국과 남북한 지리학자들의 만남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에는 한국에서 지리학 관련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중국 내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4명의 동포 학자가 있으며(그 중 3명이 연변대학 지리학과에 있음), 곧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유학생도 몇 명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중국과 남북한 사이의 지리학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5. 맺는 말

이상 중국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동향과 지리학분야 연구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중·한수교 이후 한국에 대한 연구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 아메리카, 일본에 관한 연구에 비해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지리학 차원에서 연구는 경제학, 역사학과 같은 여타 학문분야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한국에 대한 소개차원의 연구들로서 연구 주제가 적고 이론에 입각한 연구가 적은 것이다. 이는 중국이 오랫동안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하였고, 여타 국가에 대한 연구는 홀시한 원인도 있었지만 중국 경제력이 아직 해외지역연구에 지원할 만큼의 재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게다가 지리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상대적으로 적

어 연구 인력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라 하겠다.

지금 한국과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는 일방적인 ‘한국의 중국알기’로는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중국의 한국알기’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지리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지리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6명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 한국을 연구대상 지역으로 하여 지리학 관련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벌써 중국 지리학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거의 무지의 정도임을 여실히 반영한다.

한국의 지리학에 대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변대학교의 지리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중 교육적 차원에서의 중국어로 된 한국지리 관련 서적은 거의 전무하여, 최근에 관광객을 상대로 한 한국과 북한관련 소개책자와 지도들이 있을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의 지리학 관련 학자들이 한국, 나아가서 한반도를 중국에 알리고자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국을 연구하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을 중국에 알리고 자는 지리학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 및 사회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 알림 캠페인”을 벌이되, 특히 중국의 엘리트 계층을 상대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이와 결부하여 한국 지리학계에서는 한국의 문화, 한국의 지리를 소개한 책자들을 대량 출판하여 중국의 교수와 학생들에게 소개해야 한다.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유니버시아드 등으로 한국이 중국에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대학교 교과서와 같은 책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교류는 서로의 필요를 전제로 하겠지만, 그것은 밸런스가 맞는 교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측 지리학자들의 협력이 꼭 필요할 것이며,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학자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文 獻

- 逢錦聚等, 1995, 韓國經濟宏觀調控, 東方出版社.
- 刁守中, 1997, 山東地區與朝鮮半島地區地震的相關性, 華南地震, 17(3), 23-29.
- 葛秀珍, 2003, 地球科學在韓國城市規劃中所起的作用, 水文地質工程地質技術方法動態, 第3期, 7-8.
- 姜貴善等, 1989, 南朝鮮的非金屬礦產(一), 地質科技動態, 第6期, 18-25.
- 江心英等, 2000, 韓國對山東省直接投資研究, 世界地理研究, 9(4), 25-31.
- 顧林生, 2003, 國外國土規劃的特點和新動向, 世界地理研究, 12(1), 60-70.
- 顧銘學, 1985, 朝鮮知識手冊, 遼寧民族出版社.
- 吉林省社會科學研究院朝鮮研究所編, 1980, 南朝鮮涉外經濟法令匯編.
- 金鳳君, 2002, 東北亞運輸合作: 中國與朝鮮半島陸路交通聯繫與運輸組織戰略, 世界地理研究, 11(1), 24-32.
- 金鐘範, 1993, 朝鮮半島大地構造: 大地構造發展特徵, 國外地質科技, 第1期, 10-19.
- 金鐘範, 2003, 韓國城市發展政策, 上海財經大學出版社.
- 羅寶坤等, 1988, 南朝鮮概觀, 遼寧民族出版社.
- 羅斌杰, 1995, 朝鮮安州盆地原油地球化學特性, 石油學報, 16(4), 40-47.
- 呂婷婷等, 2003, 韓國經濟發展及經驗借鑒, 世界地理研究, 12(2), 25-31.
- 路紫, 2002, 韓國旅遊指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 劉黎明等, 2004, 韓國的土地利用規劃體系和農村綜合開發規劃, 經濟地理, 24(3), 383-386.
- 劉李勝, 1995, 韓國概論, 東方出版社.
- 劉寶恒等, 1996, 1982年朝鮮殷栗5.5級地震異常綜述, 東北地震研究, 12(3), 28-34.
- 劉旭明, 1995, 韓國經濟發展之路, 東方出版社.
- 劉鴻麟, 1995, 韓國近海油氣勘探概況, 海洋地質資訊通報, 第7期, 10-11.
- 李慶臻等, 1995, 韓國現代化研究, 濟南出版社.
- 李柱錫, 1996, 韓國經濟開發論, 上海財經大學出版社.
- 李竹南, 1991, 朝鮮北部及其鄰區的新構造運動和現代地形構造的形, 吉林地質, 10(1), 1-12.
- 馬永昌, 1991, 膠東-遼東-朝鮮巨型金礦集中區的分離, 成都地質學院學報, 18(3), 20-26.
- 苗春梅, 2003, 學韓語 游韓國,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米德長等, 2000, 中國, 俄羅斯, 朝鮮運輸合作的條件與前景分析, 世界地理研究, 9(1), 51-56.
- 樸昌根, 1998, 韓國產業政策, 上海人民出版社.
- 樸春燮等, 1992, 關於朝鮮中部地區的泥盆系臨津群, 山東地質情報, 第2期, 9-17.
- 潘公昭, 1946, 今日之朝鮮, 中國科學圖書公司.
- 潘文燦, 2003, 日本韓國的國土規劃, 中國地質礦產經濟, 16(8), 15-18.
- 潘善洪, 1994, 韓國研究中文文獻目錄, 杭州大學出版社.
- 裴小革, 1994, 韓國經濟, 人民出版社.
- 樊杰等, 1999, 利用外資與發展國際產業聯系-山東半島韓國投資企業典型調查分析, 地理科學, 19(1), 28-34.
- 史同廣等, 1997, 競爭優勢理論與韓國汽車工業, 人文地理, 12(4), 72-73.
- 史曉穎等, 1999, 中朝地臺奧陶系層序地層序列及其對比, 中國地質大學學報, 24(6), 573-580.
- 徐恩祿等, 1994, 韓國風俗民情研究, 東方出版社.
- 西夏, 1994, 朝鮮黃海沿岸和朝鮮南海中潮控砂脊的沉積形式, 海洋地質資訊通報, 第11期, 9-11.
- 徐憲忠, 1998, 韓國旅遊指南, 軍事誼文出版社.
- 石源華, 2002, 中國韓國學研究的回顧與展望, 當代韓國, 第33期.
- 世界知識出版社編輯, 1959, 飛躍發展中的朝鮮社會主義建設, 世界知識出版社.
- 蘇七燮等, 1989, 朝鮮金義金銀礦地球化學研究, 東北地質科技情報, 第2期, 27-30.
- 孫魯軍等, 1994, 韓國: 政府主導型的市場經濟, 武漢出版社.
- 宋成友, 1999, 韓國史研究綜述, 世界歷史, 第2期.
- 安虎森, 1990, 南朝鮮經濟的飛騰, 延邊大學出版社.
- 安虎森等, 1998a, 韓國經濟地理學研究現況和趨勢, 人文地理, 13(3), 60-64.
- 安虎森等, 1998b, 韓國聚落地理學研究現況和趨勢, 人文地理, 13(1), 77-80.
- 楊永驛等, 1985, 南朝鮮, 世界知識出版社.
- 楊振乾, 1982, 朝鮮, 商務印書館.

- 楊學忠等, 1994,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經濟, 吉林大學出版社.
- 楊曉霞, 2002, 關於重慶市開拓韓國旅遊客源市場的思考, 經濟地理, 22(2), 245-248.
- 於天福, 2000, 遼寧省與朝鮮半島經濟合作發展研究, 經濟地理, 20(2), 79-83.
- 吳戈等, 1998, 朝鮮半島三次歷史強震, 東北地震研究, 14(4), 67-70.
- 奧亞斯, 2003, 百地福旅遊指南·韓國, 當代世界出版社.
- 吳忠良, 1996, 韓國地震學研究的基本情況簡介, 國際地震動態, 第2期, 21-24.
- 于橋, 1991, 朝鮮的前寒武系和下古生界, 海洋地質譯叢, 第6期, 29-37.
- 王西安, 2001, 社會資訊化、經濟全球化與世界地理研究的全息景觀化—以韓國地理的全息景觀研究為例, 世界地理研究, 10(3), 78-85.
- 王旭等, 2004, 江浙地區與韓國城市化水準對比分析, 世界地理研究, 13(1), 50-58.
- 王志樂, 1996, 韓國企業在中國投資, 中國經濟出版社.
- 王曉文, 1994, 韓國區域發展戰略研究, 經濟地理, 14(2), 16-20.
- 于天福, 2000, 遼寧省與朝鮮半島經貿合作發展研究, 經濟地理, 20(2), 79-83.
- 李東旭等, 1997, 韓國經濟發展的經驗與教訓, 延邊大學出版社.
- 李相文等, 1983, 朝鮮社會主義經濟建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淑霞等, 1997, 韓國與其他外國直接投資在中國的比較分析和綜合評價, 中國管理科學, 5(3), 1-11.
- 任建蘭, 1995, 山東半島與韓國的經貿合作分析, 世界地理研究, 4(1).
- 任曉, 1995, 韓國經濟發展的政治分析, 上海人民出版社.
- 張文忠, 1999, 日資和韓資企業在華投資的區位行爲和模式研究, 世界經濟, 第5期, 63-66.
- 張世和, 1983, 戰後南朝鮮經濟,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世和, 1997, 朝鮮羅津-先鋒自由經濟貿易區的開發與東北亞區域國際合作和發展, 世界地理研究, 6(1).
- 張英等, 1994, 韓國財團比較研究, 東方出版社.
- 張蘊嶺, 1997, 韓國市場經濟模式, 經濟管理出版社.
- 張耀光等, 2000, 韓國海洋資源開發的現狀、特徵及今後展望, 世界地理研究, 9(3), 29-36.
- 張志超, 1994, 韓國市場經濟體制—從政府主導型向民間主導型的轉化, 蘭州大學出版社.
- 田汝耕, 2002, 臨港工業和海運物流形成全球化大生產, 海洋地質動態, 18(3), 41-42.
- 鄭京淑, 1995, 朝鮮對外貿易結構研究, 世界地理研究, 4(1).
- 鄭遼吉, 2002, 丹東市赴朝邊境旅遊發展研究, 世界地理研究, 11(3), 71-78.
- 鄭保勤, 1994, 隔海相望的近鄰—韓國, 科學普及出版社.
- 鄭判龍等, 1999, 簡明韓國百科全書,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陳龍山, 1997, 韓國經濟發展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車用太等, 1991, 朝鮮的地震研究, 地震地質譯叢, 13(5), 1-11.
- 車用太等, 1992, 朝鮮地震監測網概況, 國際地震動態, 第9期, 28-29.
- 蔡乾忠, 1995, 中國東部與朝鮮大地構造單元對應劃分, 海洋地質與第四期地質, 15(1), 7-24.
- 蔡乾忠, 1995, 中國東部與朝鮮大地構造單元對應劃分, 海洋地質與第四紀地質, 15(0), 7-24.
- 崔國洛等, 1999, 朝鮮東海西北部陸緣沉積盆地地質概況和含油氣遠景, 中國海上油氣, 13(1), 7-15.
- 夏懷寬等, 1993, 朝鮮截甯江斷裂帶的活動特徵及其與地震的關係, 地震地質, 15(2), 117-122.
- 韓國經濟發展研究課題組, 1995, 韓國經濟發展論(上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海洋地質調查局, 1983, 南朝鮮近海石油資源開發近況, 海洋地質調查動態, 第7期.
- 黃勝籌, 1997, 韓國對外直接投資的區位選擇, 世界地理研究, 6(2).
- 黃炎培, 1929, 朝鮮, 商務印書館.
- 黃平, 1997, 東北亞地緣政治特點與中韓經貿合作趨勢, 人文地理, 12(1), 29-34.
- 侯尚智等, 1996, 韓國概覽, 人民出版社.

(收訖: 2004. 9. 16, 채택: 2004. 10. 15)